
 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 금융감독원
	보도 2016.5.13(금) 조간 이후	배포 2016.5.12(목)	
책 입 자	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 박 주 영(02-2156-9790)	담 당 자	최 성 규 사무관 (02-2156-9694)
	금감원 연금금융실장 권 오 상(02-3145-5180) 금감원 정보화전략실장 황 성 관(02-3145-5370)		김 금 태 연금저축감독팀장 (02-3145-5199) 류 길 상 감독정보시스템2팀장 (02-3145-5430)

제 목 : 5월 13일부터는 「통합연금포털」에서 사학연금 정보도 조회가 가능합니다.

1. 주요내용

- '16.5.13(금)부터 통합연금포털(<http://100lifeplan.fss.or.kr>)에서 사학연금도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개시
-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금융편익 확산 등 금융 개혁의 일환으로 연금포털 조회서비스*를 운영 중('15.6월 오픈)
 - 개안·퇴직연금(88개 금융회사 등 제공), 국민연금('16.4월부터 국민연금공단 제공)
-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간 협력으로 기존의 제공된 연금정보 외에 사학연금정보가 추가 제공
 - (신규 제공되는 사학연금 정보내역) 재직·퇴직자 등의 퇴직연금, 퇴직일시금, 퇴직수당, 장해연금, 및 유족연금정보(연금 지급액, 개시일, 등)

<참고> 통합연금포털 이용 현황

- ① (가 입 자) '16.4월말 현재 약 10만명 가입('15.12월말 대비 24% 증가)
- ② (조회자수) 오픈 이후 '16.4월말까지 누적 조회자수는 약 66만여명

2. 기대효과

- 사학연금 가입자*가 앞으로 본인의 사학연금정보를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정보와 합산하여 조회할 수 있어,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대비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음
 - * 가입자 수 28만명, 적립금액 16조 3,490억원 ('15.12월말 기준)
- 사학연금 및 다른 연금의 가입정보, 연령별 예시연금액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추가 연금납입규모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

3. 향후 계획

- '16년도 중 근로복지공단(퇴직연금*) 및 주택금융공사(주택연금)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연금정보 조회 서비스를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
 - * 3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퇴직연금(DC, IRP) 가입 가능(근퇴법\$26) 가입자 수 18.7만명, 적립금액 8,626억원('15.12월 기준)

[붙임1] 소비자가 처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[붙임2] 연금포털 주요 활용사례

붙임1

소비자가 처음 통합연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

1단계

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접속

- 홈페이지(100lifeplan.fss.or.kr)에 접속
- ※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준비



2단계

회원가입

<서비스신청 및 이용동의>

- 본인의 연금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신청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(공인인증서 전자서명)

<개인정보 입력 및 회원가입>

- 본인이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
- 본인의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 등 연락처 입력



3단계

연금정보 확인가능 알림

- 본인의 연금정보 확인가능시(3영업일 소요) 이메일 안내



4단계

공인인증서 로그인

-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접속
- 홈페이지 우측상단 메뉴 중 '내연금조회' 및 '노후재무설계' 클릭

※ 최초 이용시에는 3영업일이 소요되지만, 이후 다시 이용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

붙임2

연금포털 주요 활용사례

① 한번에 조회 가능

“(A씨) 예전에는 여러 홈페이지(국민연금공단, 금융회사 등)를 일일이 접속해야 했었는데 한번에 조회하니 정말 편합니다.”

- 국민·퇴직·개인·사학연금 정보를 89개 연금사업자로부터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되었고,
- 여러 계약사항을 통일된 기준으로 조회함으로써 상품간 비교도 용이

② 미수령 연금 확인

“(B씨) 오래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했는데, 최근에 이사를 했고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금개시일이 도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연금포털을 통해 계약사항을 확인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”

- 장기간 가입·납입하는 연금상품의 특성상 가입자가 계약사항에 대해 잊고 있었거나 주소지,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금개시일이 지났으나 통지받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
- “통합연금포털”을 통해 미수령 연금 등을 확인하여 연금개시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

③ 노후 설계

“(C씨)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에 비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부터라도 좀더 체계적으로 노후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”

- 각 연금의 연령별 예시연금액,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노후설계가 가능